

LG상사, 오만과 P-X 80만톤 합작

OOO-ORC와 합작 Aromatics Oman 설립 ... 벤젠 20만톤도 건설

LG상사는 7월18일 이사회를 열고 10억달러의 오만 Aromatics 프로젝트에 6000만달러를 투자하기로 결정했다고 발표했다.

LG상사는 7월19일 오만 Sohar에서 오만 국영 OOC(Oman Oil), Oman Refinery와 오만 Aromatics 프로젝트 추진을 위한 합작법인 Aromatics Oman LLC 설립계약을 체결할 예정이다.

합작법인의 자본금은 3억달러로 LG상사, OOC, ORC가 각각 20%, 60%, 20%의 지분을 투자하고, 나머지 7억달러는 프로젝트 파이낸싱을 통해 조달할 계획이다.

합작법인은 오만 Sohar 산업단지에 화학섬유의 기초 원료인 P-X(Para-Xylene) 및 벤젠(Benzene) 제조공장을 건설할 계획이다.

생산능력은 P-X 80만톤, 벤젠 20만톤이며 예상 매출액은 7억5000만달러 수준이다.

공장 건설은 LG상사-GS건설 컨소시엄이 설계와 구매, 시공 등을 도맡아하는 턴키방식(일괄도급)으로 진행되며, 2006년 1월 착공해 2008년 본격 가동을 목표로 하고 있다.

LG상사는 합작기업에서 생산하는 P-X와 벤젠 판매권을 보유하게 된다.

LG상사는 “시장전망이 밝은 P-X, 벤젠 시장에 본격적으로 진출함으로써 국내 최대의 화학섬유 및 석유화학 원료 수출기업으로서의 입지를 강화하게 됐으며, 고부가가치 개발 프로젝트 사업을 CIS, 북아프리카 지역 등으로 확대해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화학저널 2005/07/19>